

# ‘이제는 증명의 시기’ KIA 윤도현, 유망주 꼬리표 땔까



KIA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이 특급 재능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잠재력이 아닌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KIA는 지난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주중 1차전에 앞서 윤도현을 콜업했다.

고 유격수로 평가받았다. 광주일고 진학 후에는 강한 타구 생산 능력과 공격 재능으로 주목받으며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하지만 프로 생활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된 부상이었다. 2022년 시범경기에서는 오른손 중수골 골절상을 당하며 1군 데뷔가 무산됐다.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윤도현을 활용하기 위해 비시즌 기간 1·2루 훈련을 병행시켰다. 실제 스프링캠프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도 펼쳤다. LG와의 연습경기에서는 3안타 경기를 만들었고, 삼성전에서는 홈런포까지 터뜨리며 기대감을 키웠다.

그런데 시즌 개막 후 또다시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타격 부진 속 허리와 발등에 이상이 생기며 엔트리에서 빠졌다. 하지만 올해 스프링캠프에서는 프로도 12일 복귀전을 치렀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 그가 성장할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것에도 분명이 한계가 있다.

## 부상 딛고 39일 만에 복귀...타격 재능 발휘 기대 이범호 감독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간절해야”

지난 4월 4일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된 지 39일 만이다.

윤도현은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지난 2022년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5순위 KIA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1차 지명 김도영과 함께 KIA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광주 화정초 시절 리틀야구단에서 야구를 시작했고, 무등중에서는 지역 최

고 유격수로 평가받았다. 2023년에는 꿈에 그리던 1군 무대를 밟았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단 1경기 만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2024년 역시 손가락 골절과 재발이 이어지며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타격 재능만큼은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타석 이상을 소화하며 40경기 타율 0.275, 6홈런 17타점을 기록했다. 적은 기회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성적이었다.

KIA 역시 윤도현의 능력을 높게 평가

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윤도현을 활용하기 위해 비시즌 기간 1·2루 훈련을 병행시켰다.

실제 스프링캠프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도 펼쳤다. LG와의 연습경기에서는 3안타 경기를 만들었고, 삼성전에서는 홈런포까지 터뜨리며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시즌 개막 후 또다시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타격 부진 속 허리와 발등에 이상이 생기며 엔트리에서 빠졌다. 하지만 올해 스프링캠프에서는 프로도 12일 복귀전을 치렀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 그가 성장할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것에도 분명이 한계가 있다.

특히 KIA 내야진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루에는 장타력을 갖춘 아테를린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박민과 정현창 등 젊은 자원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윤도현이 유망주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범호 감독 역시 윤도현에게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 감독은 “근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유망주라던 거기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며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2~3달 뒤 시즌이 끝나는 상황이다. 조금 더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젊은 선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실력 자체가 확 변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마음먹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 육상, 전국장애학생체전 남자 400m ‘정상’

신원호·이범준·임성민·정경은, 1분14초57 합작  
전남 e스포츠 송선우·수영 정우찬 등 맹활약 펼쳐

광주 장애인 육상 선수단이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일차 남자 400m 릴레이에서 우승을 하는 등 광주·전남 선수단이 본격적인 메달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13일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 중이다. 먼저 육상 남자 400m 릴레이 T20 초등부에서는 신원호(금호초 3년)·이범준(동산초 4년)·임성민(금호초 6년)·정경은(계수초 5년)이 팀을 이뤄 1분14초5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위는 1분56초59를 기록한 부산 선수단이 차지했다.

이여 권나리(광주세광학교 고 2년)이 여자 100m T13 고등부에서 20초44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신현성(광주세광학교 고 3년)과 용상엽(광주세광학교 중 3년)이 각각 남자 100m T12 고등부와 100m T13 중등부에서 14초290과 21초140의 기록으로 나란히 은메달을 따냈다. 고은별(상무초 6년)은 여자 100m T20 초등부에서 18초420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광주 육상 선수단은 금 1, 은 3, 동 1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보치아에서는 문하열(은혜학교 중 3년)이 여자 개인전 BC2 중등부에서 동메달을 수확했고, 수영에서는 조하준(삼정초 5년)이 남자 배영 50m S14 초등부에서 39초68기록으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단체종목에서는 축구팀(남자 11인제 지적)이 경남에 2-1로 신승을 거두고 4강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남자 400m 릴레이 T20 초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 장애인 육상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에 진출했다. 지난해 대회에 신생팀으로 첫 진출했던 광주 축구팀은 올해 선예학교와 광주주니어엔젤과 힘을 합쳐 팀을 구성, 대회 첫 승리를 거뒀다. 전남 선수단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12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활약 중이다.

육상에서는 대량의 금맥을 쫓았다. 윤하민(은광학교 고 1년)은 남자 100m T13(고)에서 16초 12로, 채진영(은광학교 중 3년)은 남자 원반던지기 F12(중)에서 19m45로, 노연희·이지아(이상 은광학교 중 3년)은 여자 100m T11(중)에서 19초650으로 각각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박은별(덕수학교 고 3년)·박은서(은광학교 고 2년)·임하윤(순천선혜학교 고 2년)·황다연(함평영화학교 고 3년)은 팀을 이뤄 출전한 여자 100m×4R T20(고)에서 1분9초57을 합작하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같은 종목 중등부에서는 강유림(덕수학교 중 2년)·국사량(소림학교 중 1년)·김가영(목포인성학교 중 3년)·김예지(함평영화학교 중 1년)·송지우(함평영화학교 중 3년)가 1분13초43으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e스포츠에서는 송선우(함평영화학교 중 3년)가 혼성 리그오브레전드(개인전) 지적(발발) OPEN(중) 정상에 올랐다. 수영에서는 정우찬(여수양지초 6년)이 남자 자유형 50m S7~S8(초)에서 1분12초34로 금맥을 쫓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청 육상 이재성, 전국선수권 ‘동’ 국가대표 확정...아시안게임으로 향한다

남자 100m 결승서 10초13  
광주시청 박지영, 동메달  
여자100m히틀 13초89 기록

광주시청 육상팀 이재성이 전국선수권에서 입상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재성은 지난 12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13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나머지 조열진이 10초09로 우승했고, 비웨사 다니엘이 10초13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재성은 전체 세 번째 기록으로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이재성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 10초26, 준결승에서 10초23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결승 무대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뛰어난 스타트로 초반 선두권 경쟁을 펼쳤고, 나마디 조열진·비웨사 다니엘과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사진 감독 결과 최종 3위로 확정됐다. 다만 이날 풍속이 초속 2.7m로 측정돼 기록은 참고기록으로만 남았다. 육상공인 기록은 풍속 초속 2m 이하에서만 인정된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이재성에게 두 번째 아시안게임 무대다. 그는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1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최근 한국 단거리 선수들의 기록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메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청 박지영도 여자 100m 히틀에서 입상에 성공했다. 박지영은 결승에서 13초89를 기록하며 무나희(안산시청·13초56), 조수진(용인시청·13초61)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심재욱 광주시청 감독은 “이재성이 준비를 잘해왔고 예선과 준결승에서도 전체 1위를 기록할 만큼 흐름이 좋았다”며 “결승 막판 다소 힘이 들어갔지만 1, 2위 다음으로 좋은 기록을 내면서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중국과 일본의 벽이 높지만 현재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기록 경쟁력이 좋아 금메달 도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재성

## 광주 유소년 승마, 춘계 전국학생대회 금빛 질주

이정우, 4경기서 1위 석권...진태훈, 90클래스 정상

광주 유소년 승마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승마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3일 광주시승마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북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2026 춘계 전국학생승마대회’에서 광주 소속 유소년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선전했다. 광주승마협회 유소년 승마단 소속 이정우(광주고 3년)는 이번 대회에 마명 ‘차코레시아’와 함께 나섰다. 그는 고등부 장애물 120클래스와 중고등부 장애물 135클래스, 고등부 장애물 140클래스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통합 1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말 ‘칸투리니’와 출전한 장애물 130클래스 고등·대학부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통합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호스앤드림 승마클럽 소속 진태훈(광



최근 경북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2026 춘계 전국학생승마대회’에서 입상에 성공한 이정우(왼쪽 두 번째). 사진제공=광주시승마협회

주고 3년) 역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진태훈은 ‘포킵스’와 출전한 고등부 90클래스에서 우승했고, ‘산투리아’와 함께한 고등·대학부 80클래스와 고등부 90클래스에서는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했다.



최근 경북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2026 춘계 전국학생승마대회’ 장애물 경기를 뛰고 있는 이정우. 사진제공=광주시승마협회

특히 이정우는 120클래스부터 135클래스까지 장애물 감점 없이 안정적인 경기운명을 펼쳤다. 일부 시간 감점은 있었지만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마쳤고, 최고 난도인 140클래스

에서도 장애물 1개 낙하로 4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1위를 지켜냈다. 승마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 높이에 따라 클래스가 구분된다. 120클래스는 12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장애물이 떨어질 경우 개당 4점,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점씩 감점된다. 이정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취미로 승마를 시작했고, 중학교 3학년 때 개인 말을 보유하며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에 들어섰다. 고등학교 진학 후 장애물 종목에 집중하기 시작해 빠르게 성장했고, 임문 3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며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진태훈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장애물 승마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두 선수 모두 비교적 낮은 나이에 승마를 시작했지만, 광주승마협회의 지원과 체계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광주시승마협회는 유소년·청소년 승마 활성화와 대학 진학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승마 꿈나무 선수 발굴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